

공과대학의 취업 현황 분석

서양곤*

경상대학교 생명화학공학과

(ygseo@gnu.ac.kr*)

최근 대학 교육은 주변 환경에 의해 많은 변화를 겪었고, 현재도 많은 변화를 요구 받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대학 졸업생에 대한 취업률이다. 대학의 취업률은 대학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 중의 하나가 되었고, 취업률이 학생들의 학교선택의 중요한 평가기준이 되고 있다. 정부도 취업률에 따라 학교별 차등지원 계획을 발표하는 등 각 대학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에 따라 전국 대학은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LINC 사업, 공학교육혁신사업 등과 연계하여 취업률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현장 중심의 인재양성을 통해 재학생의 실무능력 향상 및 취업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 전략적 취업컨설팅 사업 등을 실시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갈수록 취업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대학생들은 학생 나름으로 각각의 취업전략으로 취업의 문을 뚫고 들어가려고 다양한 스펙을 쌓으며 고군분투하는 대학생들이 많은 실정이다. 공과대학의 취업률 분석을 통해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보다 정확한 자료와 통계를 통한 현실인식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